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을 중심으로

이종란^{1*}, 박선정²

¹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여주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Jong-Lan Lee^{1*}, Sun-Jung Park²

¹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을 확인하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에 있는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는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극복력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전공 만족도, 스트레스, 가족 경제력, 생의 의미, 극복력으로 이들 변수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4.8%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생의 의미 향상, 공감능력 증진,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In an attemp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geared toward facilitating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verify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and resilience, as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and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Between March 1 to April 30, 2019, 531 nursing students in two different college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were enrolled to undertake a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s,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the meaning of lif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skills, resilience and the degree of college adjustment. It was also ascertained that college adjustment was better when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and resilience were greater. Factors affecting college adjustment include gender, grade, education at admission, health status, major satisfaction, stress, family economy, meaning of life and resilience; these variables had a 44.8% explain ability of college adjustment.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propose that sustained edu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are required to enhance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and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to ensure their successful college adjustment.

Keywords : College Adjustment, Empathy Skills, Meaning of Life, Nursing Students, Resilience.

*Corresponding Author : Jong-Lan Lee(Suwon Women's Univ.)

email: awoon@swc.ac.kr

Received August 20,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Revised October 4,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의 선택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 대학 및 전공학과에 대한 탐색과 객관적인 자기 이해, 개인의 가치관, 자기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1] 대학 진학을 했을 때, 대학생활 적응도 높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확실한 정보와 객관적인 분석 없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직업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며[2],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 및 전공학과를 지원하여,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생활은 자율적인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와 사고방식, 미래 설계 및 대인관계 등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서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으로서 자신의 정체감과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로[3]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간호대학생은 본인 스스로 대학생의 역할 기대, 책임, 자율 등을 요구받고 직업 및 진로, 학점관리, 대인관계, 임상실습 등의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므로[4] 대학생활적응은 중요한 문제이다.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 적응은 간호학의 특성상 타 과에 비해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지식의 습득, 국가고시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야 취업 후 간호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게 된다[5].

대학생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려면 생의 의미는 중요시되며, Bronk 등의 연구[6]에서 대학생의 생의 의미는 그들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유발 요소가 되므로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 미래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학생의 생의 의미에 대한 파악은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6].

타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인 공감능력[7], 다양성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으로 매우 중요시된다. 대학생활 동안 동료, 선배 등 구성원들과 협동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고 추후 취업 후 간호사로

서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8].

극복력은 모든 인간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으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다[9]. Jang과 Lee의 연구[10]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극복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많은 간호대학 학생들이 대학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힘겨움을 이겨내면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극복력은 중요한 개념이다.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 의미와 목적 즉, 생의 의미가 없다면 간호사 직업에 대한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간호를 받는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생의 의미가 확립되고 행복한 간호대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게 된다. 또한, 대학생활은 졸업 후에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직업관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생의 의미를 알고 타인의 삶을 공감하며 극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7,12], 자기효능감[10,12], 감성지능[13-14], 정서지능[3,15], 임상실습 스트레스[4,5], 자아 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16], 자아 탄력성[17-18], 유머감각[19]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2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1~4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을 비확률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05, 검정력 0.90, 유의수준 0.05, 예측 변인 14개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 수는 473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54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9부를 제외 한 5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전공만족도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생의 의미

Choi 등[20]이 개발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13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2로 나타났다.

2.3.3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1]가 개발한 도구를 Jeon[22]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긍정적 24개 문항과 부정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8로 나타났다.

2.3.4 극복력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ong [23]이 번역한 Resilience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점에서 '매우 동의 한다'는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로 나타났다.

2.3.5 대학생생활 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24]가 제작한 대학생 생활적응도 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참고로 Lee[25]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hronbach's alpha 값은 .85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0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경기도 내 2개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 이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자기기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동의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여 도중 응답을 원하지 않을 때 철회가 가능하고 비밀 보장 및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인 간호대학생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 설문 작성이 완료된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에 대해 서술적 통계 분석, 측정 변수 간의 차이,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 508명(95.7%), 남학생 23명(4.3%)이었고, 학년은 1학년 94명(17.7%), 2학년 164명(30.9%), 3학년 172명(32.4%), 4학년 101명(19.0%) 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508	95.7
	Male	23	4.3
Grade	Freshman	94	17.7
	Sophomore	164	30.9
	Junior	172	32.4
	Senior	101	19.0
Education at Admission	High school graduation	389	73.3
	College graduation	83	15.6
	University graduation	54	10.2
	Qualification exam	3	0.6
Residency	Other	2	0.4
	With parents	463	87.2
	Self-boarding	41	7.7
	Dormitory	15	2.8
	With others family member	7	1.3
Religion	Others	5	0.9
	Christian	137	25.8
	Buddhism	40	7.5
	Catholic	50	9.4
	None	303	57.1
Health status	Healthy	292	55.0
	Moderate	193	36.3
	Unhealthy	46	8.7
Human relationship	Good	315	59.3
	Average	145	27.3
Major satisfaction	Bad	71	13.4
	Satisfaction	270	50.8
	Average	192	36.2
Stress	Dissatisfaction	69	13.0
	Many	161	30.3
	Average	294	55.4
Family Economy	None	76	14.3
	Less than 1 million won	14	2.6
	More than 1 million won~Less than 2 million won	50	9.4
	More than 2 million won~Less than 3 million won	117	22.0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98	18.5
	Over four million won	245	46.1
	Unknown	7	1.3

3.2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생의 의미는 5점 만점에 평균 2.97(±.40)점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35)점, 극복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72(±.73)점,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6(±.44)점 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N=531)

Variables	M±SD	Min~Max
Meaning of life	2.97±.40	1.15~4.15
Empathy skills	3.48±.35	2.33~4.50
Resilience	4.72±.73	2.64~6.79
College adjustment	3.16±.44	1.84~5.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는 성별($t=3.39, p=.001$), 학년($F=18.55, p=.000$), 종교($F=6.57, p=.000$), 건강상태($F=3.05, p=.048$), 대인관계($F=24.30, p=.000$), 전공 만족도($F=6.38, p=.002$), 스트레스($F=28.60, p=.000$), 가족 경제력($F=2.70, p=.02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성별($t=-2.57, p=.010$), 학년($F=30.69, p=.000$), 종교($F=2.64, p=.033$), 건강상태($F=12.06, p=.000$), 대인관계($F=34.93, p=.000$), 전공 만족도($F=21.17, p=.000$), 스트레스($F=17.21, p=.000$), 가족 경제력($F=4.75,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성별($t=-2.69, p=.007$), 학년($F=28.94, p=.000$), 입학 당시 학력($F=3.08, p=.016$), 종교($F=4.10, p=.003$), 건강상태($F=22.53, p=.000$), 대인관계($F=53.31, p=.000$), 전공 만족도($F=34.22, p=.000$), 스트레스($F=18.16, p=.000$), 가족 경제력($F=9.05,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성별($t=-5.081, p=.000$), 학년($F=11.46, p=.000$), 입학 당시 학력($F=2.57, p=.034$), 건강상태($F=27.52, p=.000$), 대인관계($F=21.52, p=.000$), 전공 만족도($F=52.11, p=.000$), 스트레스($F=37.07, p=.000$), 가족 경제력($F=3.37,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31)

Variables	Categories	N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ex	Female	508	2.96±.39	3.39	.001	3.49±.35	-2.57	.010	4.74±.73	-2.69	.007	3.17±.45	-5.08	.000
	Male	23	3.24±.32			3.30±.29			4.32±.63			2.93±.21		
Grade	Freshman	94	3.20±.40	18.55	.000	3.20±.24	30.69	.000	4.14±.56	28.94	.000	2.96±.20	11.46	.000
	Sophomore	164	2.99±.39			3.50±.33			4.75±.73			3.26±.42		
	Junior	172	2.89±.34			3.57±.32			4.93±.64			3.21±.46		
	Senior	101	2.85±.40			3.54±.38			4.84±.76			3.09±.54		
Education at Admission	High school graduation	389	2.99±.40	1.75	.138	3.46±.35	2.01	.093	4.67±.73	3.08	.016	3.16±.43	2.57	.037
	College graduation	83	2.89±.33			3.52±.39			4.76±.73			3.05±.46		
	University graduation	54	2.92±.44			3.58±.32			5.01±.73			3.30±.43		
	Qualification exam	3	2.82±.25			3.62±.07			5.06±.20			3.21±.59		
Other	2	2.62±.44	3.53±.09	4.29±.01	3.24±.68									
Residency	With parents	463	2.96±.40	.56	.695	3.48±.34	1.59	.177	4.72±.73	1.75	.138	3.15±.44	.71	.584
	Self-boarding	41	3.01±.38			3.42±.43			4.84±.75			3.21±.50		
	Dormitory	15	3.07±.38			3.48±.32			4.36±.80			3.15±.36		
	With others family member	7	3.00±.33			3.54±.36			4.45±.84			2.92±.33		
Others	5	3.01±.26	3.13±.33	4.37±.72	3.24±.57									
Religion	Christian	137	3.04±.42	6.57	.000	3.51±.35	2.64	.033	4.67±.77	4.10	.003	3.17±.43	1.45	.216
	Buddhism	40	3.14±.42			3.32±.42			4.46±.68			3.00±.32		
	Catholic	50	3.01±.41			3.44±.33			4.60±.78			3.14±.44		
	Others	1	3.69±.00			3.33±.00			2.94±.00			2.96±.00		
None	303	2.90±.36	3.50±.34	4.80±.70	3.18±.46									
Health status	Heathy	292	2.97±.39	3.05	.048	3.53±.36	12.06	.000	4.89±.73	22.53	.000	3.26±.45	27.52	.000
	Moderate	193	2.92±.39			3.43±.34			4.56±.70			3.08±.39		
	Unhealthy(c)	23	3.08±.45			3.30±.28			4.28±.58			2.82±.34		
Human relations hip	Heathy(a)	315	3.00±.38	24.30	.000	3.56±.34	34.93	.000	4.95±.70	53.31	.000	3.26±.46	21.52	.000
	Moderate(b)	145	2.80±.35			3.44±.35			4.50±.66			3.02±.44		
	Unhealthy(c)	30	3.15±.41			3.20±.23			4.14±.54			2.99±.17		
Major satisfacti on	Satisfaction(a)	270	3.02±.38	6.38	.002	3.56±.35	21.17	.000	4.95±.72	34.22	.000	3.33±.45	52.11	.000
	Average(b)	193	2.89±.39			3.43±.33			4.56±.69			3.00±.36		
	Dissatisfaction(c)	52	2.99±.44			3.29±.28			4.27±.57			2.90±.32		
Stress	Many	161	2.82±.39	28.60	.000	3.46±.36	17.21	.000	4.60±.69	18.16	.000	2.93±.41	37.07	.000
	Average	294	2.99±.37			3.54±.35			4.87±.69			3.28±.41		
	None	40	3.21±.38			3.29±.26			4.37±.81			3.14±.43		
Family Economy	Less than 1 million won	14	2.91±.25	2.70	.020	3.35±.32	4.75	.000	4.19±.54	9.05	.000	2.98±.27	3.37	.005
	More than 1 million won-Less than 2 million won	50	3.11±.42			3.32±.38			4.51±.67			2.99±.30		
	More than 2 million won-Less than 3 million won	117	2.99±.40			3.43±.30			4.46±.71			3.12±.39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98	2.89±.41			3.49±.38			4.74±.77			3.14±.48		
	Over four million won	245	2.99±.38			3.54±.35			4.91±.69			3.22±.47		
	Unknown	7	2.73±.29			3.57±.27			4.61±.82			3.26±.31		

3.4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의 의미는 공감능력($r=.092, p=.033$), 극복력($r=.246, p=.000$), 대학생활 적응정도($r=.328, p=.000$)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극복력($r=.425, p=.000$), 대학생활 적응 정도($r=.246, p=.000$)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극복력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

($r=.501, p=.000$)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4).

3.5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 입학 당시

Table 4. Correlation among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life adaptation (N=531)

Variables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Meaning of life	1	.092 .033	.246 .000	.328 .000
Empathy skills		1	.425 .000	.246 .000
Resilience			1	.501 .000
College adjustment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N=531)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369	.154		8.917	.000
Sex		.198	.072	.091	2.737	.006
Grade	Sophomore	.119	.036	.125	3.328	.001
	Junior	.078	.037	.083	2.132	.034
Education at Admission	College graduation	-.079	.040	-.065	-1.982	.048
Health status		.086	.030	.097	2.864	.004
Major satisfaction		.207	.030	.235	6.837	.000
Stress		-.216	.032	-.225	-6.649	.000
Family Economy	More than 1 million won~Less than 2 million won	-.138	.050	-.091	-2.757	.006
Meaning of life		.216	.040	.193	5.388	.000
Resilience		.177	.023	.293	7.836	.000

Adjusted R²=.448, F=44.006(p<.001)

* Dummy variables : Stress(Many=1, Average, None=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1, Average, Dissatisfaction=0), Health status(Healthy=1, Moderate, Unhealthy=0), Sex (male=0, female=1), Family Economy (based on variables : Less than 1 million won), Grade (based on variables : Freshman), Education at Admission (based on variables : High school graduate)

학력,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스트레스, 가족 경제력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4.006, p=.000), 다중회귀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80로 자기 상관성이 없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이 1.025~1.446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자의 성별($\beta=.091$, $p=.006$), 2학년($\beta=.125$, $p=.001$), 3학년($\beta=.083$, $p=.034$), 입학 당시 학력이 전문대 졸업($\beta=-.065$, $p=.048$), 건강상태($\beta=.097$, $p=.004$), 전공만족도($\beta=.235$, $p=.000$), 스트레스($\beta=-.225$, $p=.000$), 가족 경제력이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beta=-.091$, $p=.006$), 생의 의미($\beta=.193$, $p=.000$), 극복력($\beta=.293$, $p=.00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4.8%로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

에 영향 하는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수준을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1~4학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Yun과 Min의 연구[18] 3.19점, Lee의 연구[25] 3.15점, Son 등의 연구[26] 3.12점과 비슷한 점수가 확인되었고, Lee 등의 연구[27] 3.23점보다는 낮고, Kim의 연구[28] 2.72점보다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o의 연구[29]에서는 3.30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Jang의 연구[30]에서는 3.06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년이 올

라갈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고학년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과 임상 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학업이나 잦은 시험에 대한 부담, 취업에 대한 고민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Jain의 연구[31]에서 고학년 일반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을 가장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전공학과 및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좀 더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입생 때부터 상담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6].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중간이상의 생의 의미 수준을 보였다. Sim과 Park의 연구[32] 3.02점, Kim 등의 연구[33] 3.11점보다는 낮게 나왔고, Byeon과 Park의 연구[34] 2.87점보다는 높게 나왔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7점 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와 Wee의 연구[35] 4.97점, Kim과 Kim의 연구[36] 4.82점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도구의 차이로 직접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입학 시부터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대학생이 본인 스스로 생의 의미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해나갈 수 있다면 생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48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Yang의 연구[37] 3.0점, Park와 Chung의 연구[38] 3.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Kim과 Lee의 연구[39] 3.5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대상자이지만 대상자들을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 간호사와 대상자의 공감은 대표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므로 훌륭한 간호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개발된 공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공감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극복력은 7점 만점에 4.72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Kim 등의 연구[40] 4.93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Park의 연구[41] 4.5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극복력을 측정한 연구는 미흡하여 많은 비교가 어려웠지만 본 연구와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높여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에게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에서 성별, 학력,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가족경제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42], 경제수준,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6]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을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입학 당시부터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Yang과 Moon[43]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의 의미는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극복력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삶에 의미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 극복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세 가지 변수는 대학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규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근무 시 대상자와의 공감능력이 치료적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인 스스로가 삶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고 대학생활에서 강화된 극복력을 발휘 할 프로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성별, 학년,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가족 경제력, 생의 의미와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의 44.8%를 설명하였고, 극복력이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극복력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Jang의 연구[30], Kim의 연구[44], Lee의 연구[45]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였고, 나아가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료되는 변수를 보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력을 높여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에게 본인의 생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생의 의미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극복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 학년,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가족 경제력, 생의 의미와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중 극복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 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 학년별로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K. Yoon, Y. K. Han, S. H. Im, W. Y. Kim,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college and major sele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42, No. 2, pp. 87-107, 2015.
- [2] K. S. Bang, J. K. Cho,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88-97, 2008.
- [3]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76-158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76>
- [4]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5]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2.18.2.312>
- [6] K. C. Bronk, W. H. Finch, T. L. Talib, "Purpose in life among high ability adolescents", *High Ability Studies*, Vol. 21, No. 2, pp. 133-145, 2010.
DOI: <http://dx.doi.org/10.1080/13598139.2010.525339>
- [7] D. Rogers, C. Hudson,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2, No. 3, pp. 119-132, 1995.
DOI: <https://doi.org/10.1007/BF01740298>
- [8] S. Tanzi, G. Biasco, W. F. Baile, "Enhancing the empathic connection: using action methods to understand conflicts in end-of-life care", *Journal of Patient Experience*, Vol. 1, No. 1, pp. 14-21, 2014.
DOI: <https://doi.org/10.1177/237437431400100104>
- [9] S. S. Luthar, D. Cicchetti,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pp. 543-562, 2000.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4>
- [10] S. H. Jang, M. Y. Le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9, No. 2, pp. 255-265, 2015.
- [11] E. S. Kang, "Meaning and Purpose in Life of Nursing Students", *Kosin Medical Journal*, Vol. 16, No. 1, pp. 127-137, 2001.
- [12] K. H. Yang, J. R. Lee, B. N. Park,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5-13,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13]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 [14]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55-365,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0.355>
- [15] S. M. Park, C. G. Kim, S. K. Cha,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nursing student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00-311,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00>
- [16] Y. S. Choi,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23-432,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423>
- [17]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8]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395-403,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395>
- [19] S. H. Park, E. K. Byu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and ego 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256-264,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0.256>
- [20] S. O. Chol, S. N. Kim, K.I. Shin, J. J. Le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5, pp. 931-942, 2005.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5.35.5.931>
- [21]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p. 85, 1980.
- [22]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pp. 56-58, 2003.
- [23] Y. S. Song, *Determinants of resilience of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of Nursing Science, Busan, Korea, pp. 46-47, 2004.
- [24]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25]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67-68 1999.
- [26] H. G. Son, S. H. Kwon, H. J. Park,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5, pp. 636-646,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5.636>
- [27] K. W. Lee, I. H. Moon, S. 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4, No. 2, pp. 15-27, 2013.
- [28] K. H. Kim,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3, pp. 301-313,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3.301>
- [29]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0.280>
- [30] S. Y. Jang, "Influence of Stress and Resilience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30, No. 3, pp. 1075-1088, 2018.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8.06.30.3.1075>
- [31] Dr. P. Jain,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s in Scientific Research and Engineering*, Vol 3, No. 5, pp. 10-12 2017.
DOI: <http://doi.org/10.5281/zenodo.805893>
- [32] M. K. Sim, J. M. Park, "The Influence of Spirituality, Meaning in Life and Hospice Perception on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7, pp. 290-299,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7.290>
- [33] S. N. Kim, H. J. Kim, S. O. Choi,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454-463,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454>

- [34] D. H. Byeon, M. H. Park,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Meaning of Life, Death and Well-dying and Hospi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5, pp. 169-176,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169>
- [35] Y. R. Park, H. Wee, "The Influence of Purpose in Life, Gratitude, and Depression on Anger in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sis Society*, Vol. 15, No. 5, pp. 2685-2700, 2013.
- [36] S. M. Kim, S. O. Kim, "Factors Influencing Meaning in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3, No. 1, pp. 57-65, 2017.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7.23.1.57>
- [37] S. Y. Yang,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Ego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3, pp. 1699-1710, 2015.
- [38]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698-7707,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39] H. J. Kim, M. S. Le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37-245,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37>
- [40] J. Y. Kim, M. K. Kim, J. Y. Cho,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 669-678,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669>
- [41] J. Y. Park, *Stress, Stress re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pp. 24-25, 2011.
- [42]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3.267>
- [43] N. Y. Yang, S. Y. Mo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33-42,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33>
- [44] S. Y. Kim,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2, No. 1, pp. 253-262, 2018.

DOI: <http://doi.org/10.21184/jkeia.2018.1.12.1.253>

- [45] J. S. Le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53-26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이 종 란(Jong-Lan Lee)

[정회원]



- 1996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학 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88년 4월 ~ 2016년 6월 : 고대의료원 간호사 및 간호차장
- 2018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교육, 간호정보

박 선 정(Sun-Jung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 건강증진, 부모 양육행위